

'하시5' 폭스 박우열 둘러싼 묘한 삼각기류 터졌다

등록 2026.05.11 11:59:12



[서울=뉴시스]'하트시그널5'(사진=채널A 제공) 2026.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박우열, 강유경, 정규리가 묘한 기류에 휩싸인다.

12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채널A '하트시그널5' 5회에서는 연예인 예측단 윤종신, 김이나, 로이킴, 츠키가 자리한 가운데 배우 홍중현과 래퍼 pH-1(피에이치원)이 함께한다.

'시그널 하우스' 입주 5일 차, 강유경은 전날 첫 공식 데이트를 한 박우열과 카풀을 약속해 아침 일찍부터 박우열을 기다린다.

잠시 후 박우열이 주방에 나타나자, 강유경은 "오빠는 아침에 이렇게 붓는구나"라며 장난을 친다.

박우열은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라고 하더니, "데려다주지 말까? 고민도 했다"고 너스레를 떠다.

이어 "어제 잘 잤어?"라고 묻는데, 강유경은 "아예 잠을 못 잤다"고 고백한다.

이를 들은 김이나는 "그만큼 어제의 충격이 컸던 것"이라며 '소금빵'의 정체를 뒤늦게 알게 돼 당황한 강유경의 속내를 대신 전한다.

이후 정규리는 식사 중인 두 사람을 그대로 지나쳐 가며, 강유경에게만 "이따 저녁에 봐"라고 인사한다.

정규리는 자신과 카풀을 했던 박우열이 강유경과 다정하게 식사하며 카풀까지 하는 데다, 전날 박우열에게 문자를 보냈음에도 자신은 문자를 받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되게 신경 쓰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며 씩씩한 마음을 감추지 못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